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파견기간: 2022학년도 2학기 (2022 Fall, 2023 Winter Quarter)  
컴퓨터공학부 20학번 권민정

### 1.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대학생이 되면 교환학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여러 여유롭게 생활해 보고 싶다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교환학생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영어 실력 향상, 새로운 환경에 혼자 살아보는 경험, 외국 친구들의 다양한 시각을 경험해보는 것을 기대하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2. 파견 대학 및 지역 소개

UCLA는 LA 중에서 서쪽에 위치한 Westwood라는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에 노숙자들이 매우 많아졌는데, 날씨가 따뜻한 LA의 특성상 길거리에 노숙자가 매우 많습니다. 노숙자들이 마약중독자인 경우가 많아서 밤에 다운타운 쪽은 특히나 위험합니다. Westwood는 Beverly Hills 옆에 위치한 부촌이라 현지 친구들은 안전한 동네라고 하지만, 새벽에 혼자 산책해도 안전한 한국에 살다온 저로서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Westwood 쪽에 마약에 취한 노숙자들이 가끔 있어서 밤에는 혼자 다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치만, 캠퍼스 주변에 주요 마트들(Ralphs, Target, Trader Joes, Whole Foods), 주요 패스트푸드 음식점들(In-n-out, Chick-fil-a, Chitpole)가 모두 walking distance에 있는 변화한 지역입니다. 서울과 비교하면 건물들이 다 낮고 변화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미국의 다른 동네들과 비교하면 이 모든 것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동네는 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anta Monica, Venice Beach, Getty Center, Hollywood가 모두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학기 중에 LA를 둘러보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 3. 출국 전 준비 사항

저는 미국 시민권자라 비자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크게 지원할 때 필요한 TOEFL, housing 신청, 수강신청이 있습니다.

TOEFL은 성적이 나오는 데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유롭게 응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UCLA의 housing 중 교환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은 기숙사, off campus university apartment, co-op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off campus university apartment로 배경이 되어서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2인실 4개, 화장실 2개, 주방, 거실로 구성된 아파트였고 Laurel 이라는 건물에 거주했습니다. 기숙사는 meal plan을 함께 구매하는데, 이것으로 교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dining hall들이 맛있기로 유명한데, 코로나 이후에는 인력난으로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만 meal plan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off campus apartment에 살면 meal plan이 없는 대신, 기숙사에 없는 취사시설이 있습니다. 미국이 외식물가는 비싸지만 장봐서 요리를 한다면 식재료는 저렴하므로 요리를 좋아한다면 아파트가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저의 경우에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미국 마트에서 장보는 것도 쓸쓸한 재미입니다.) Co-op의 경우에는 사설 기숙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장 저렴하지만 건물이 낡았고 밥이 맛있으며 shift라고 일을 나눠서 해야 합니다. 각 거주형태별로 특성을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숙사	Universtiy Apartment	Co-op
가격	가장 비쌌	중간	가장 싼
식사	학식(dining hall) 맛있음	직접 요리	밥 제공(맛 보통)
위치	학교와 가장 가까움	학교와 도보 20분이지만 셔틀버스가 있음(배차간격은 길어서 미리 시간표 확인 필요)	학교와 도보 15분 정도
구성	2, 3인 1실 (대부분 3인 1실)	대부분 8인 4실 (건물마다 다름)	모르겠음

UCLA에서의 수강신청은 각자 정해진 pass time에 신청을 합니다.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전공 제한, 선이수과목 때문에 시스템에서 바로 수강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과 사무실,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서 ECR, PTE 등의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해야합니다. 여러 제한이 많아서 듣고싶은 과목을 모두 듣기는 힘듭니다. 저는 fall quarter에는 교양수업(General Education)을 위주로 수강했고, Winter quarter에는 전공 수업을 위주로 수강했습니다. 리딩과 글쓰기를 싫어하는 저에게는 교양수업이 매주 reading, essay들이 있어서 더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전공 수업들이 훨씬 부담이 적고 편했습니다. 수업의 수준은 평이하고, 저처럼 reading, writing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교양을 적게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 4. 학업 및 현지 생활 안내

교양수업은 앞서 말했듯이 자잘한 reading, writing 과제가 많은 편입니다. 또, discussion, office hour 시간을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서울대와 큰 차이점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In-n-out은 메뉴판은 매우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빵 대신 양상추로 감싸는 protien style, 양파를 구워서 주는 grilled onions 등 다양하게 입맛에 맞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시도한 결과 double-double with extra extra(3배로 줍니다) whole grilled onions, extra lettuce, extra tomato, no salt로 주문하고, 조금 더 가볍게 먹고 싶을 때는 protien style로 주문합니다. 이런 커스터마이징을 해도 가격이 똑같으므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서 입맛에 맞는 조합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No salt로 주문을 해도 기본간이 되어있으므로 싱겁지 않습니다.

Target은 생활용품, Ralphs는 전반적인 식자재와 공산품, Trader Joes는 자체브랜드 상품이 많고 저렴한 유기농, Whole foods는 비싼 유기농을 파는 마트입니다. Whole foods에서 삼겹살, 갈비 등을 세일할 때 구매하면 저렴하게 질 좋은 고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일을 활용해서 삼겹살 수육, 갈비찜 등을 해먹었는데 직접 요리하면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공강시간에 학교 잔디밭에 많은 학생들이 누워 있습니다. 교환학생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햇살 아래에서 누워있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또, Royce hall의 기둥에 기대 앉아있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마지막에는 아마존에서 해먹을 구매해서 학교 잔디밭

에 설치해서 누워있었는데, 여유롭고 힐링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LA에서 꼭 추천하는 활동이라면 돛자리와 해먹을 준비해서 학교 잔디밭에서 햇살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 **5.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뚜렷한 목표 없이 핑크빛 기대로 교환학생에 왔는데, 막상 와보니 낯선 환경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생각보다 외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인들의 가치관, 사고방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영어실력 등 얻어가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